



**히딩크의 마법** 23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F조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 후반 34분 호주의 전방 공격수 해리 쿨(오른쪽 뒤쪽)이 극적인 동점골을 성공시킨 후 팀 동료들과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주요 경기 결과

# 호나우두 14골... 펠레를 넘다 '마술사' 호주 히딩크 "伊나와"

### 일본, 무기력한 패배

▲브라질-일본  
브라질이 예상치 못한 선제골을 내줬지만 우승 후보다운 막강한 화력을 뽐내며 일본에 쓰디쓴 패배를 안긴 한판이었다.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짓고 가벼운 마음으로 경기에 나선 브라질은 카푸와 카를루스 등을 벤치에 앉혔지만 일본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경기 초반 잠깐 공세를 취하던 일본은 공격수까지 모두 후방으로 물러들며 브라질의 공세를 막아내기에 바빴지만 첫 골은 일본이 따냈다.

일방적으로 몰리다 브라질에서 귀화한 알렉스가 전광석화처럼 볼을 몰고 들어가 브라질 골지역 왼쪽으로 쇄도하던 다마다 게이에게 건넸고 다마다는 전반 34분 베파 슈팅으로 골문을 갈랐다.

그러나 일본의 우세는 오래 가지 못했다. 전반 인저리 타임 때 호나우두가 헤딩슛을 성공시켜 동점을 이룬 뒤 후반 8분에는 주니뉴가 골을 성공시켜 승기를 잡았다.

빈틈을 본 브라질은 6분 뒤 지우베르투가 추가골로 일본을 그로기 상대로 몰아넣었다. 호나우두는 후반 36분 호나우두가 주앙과 삼카패스를 주고 받은 끝에 1골을 보며 게르트 뮐러(독일)가 갖고 있는 월드컵 본선 최다골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 '사커루' 16강 골인

#### ▲호주-크로아티아

16강 진출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할수 없는 두 팀이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였지만 최후 승자는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사커루' 호주였다. 호주는 전반 2분만에 크로아티아의 나리요 스톨라에게 호주 골문 왼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림같은 프리킥 골을 먼저 내쳤다.

선취점을 빼앗겼지만 흔들리지 않은 호주



23일 열린 월드컵 F조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 호주의 거스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의 플레이를 지켜보고 있다.

는 공격의 주도권을 쥐면서 크로아티아의 골문을 위협했다.

과상공세를 멈추지 않던 호주는 전반 38분 크로아티아 페널티지역에서 상대 수비수 스테판 토마스의 핸들링 반칙으로 귀중한 페널티킥을 얻었고 크레이그 무어가 침착하게 골을 골문에 차넣어 동점을 만들었다.

후반 들어 공격을 강화한 크로아티아는 11분 니코 코바치가 다시 추가점을 올렸다.

승기를 뺏긴듯한 호주는 후반 30분 포워드 조슈아 케네디를 투입해 승부수를 띄웠고 후반 34분 해리 쿨이 상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강습으로 극적인 골을 성공시켜 2-2 균형을 맞췄다.

크로아티아는 후반 38분 포워드 이반 클라시니치를 투입해 득점을 노렸지만 2분 뒤 수비수 다리오 시미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는 불운을 겪으며 끝내 호주 골문을 열지 못했다.

### 이탈리아 빗장수비 위력

#### ▲이탈리아-체코(2-0)

조별리그 개막전에서 가나를 2-0으로 제압한 뒤 미국과 헝가리 끝에 1-1로 비겨 위기에 놓였던 이탈리아가 탄탄한 빗장수비의 위력을 과시한 한판이었다.

유효슈팅 한 차례 기록하지 못하며 역습을 노리던 이탈리아의 첫 골은 전반 17분 투입된 마르코 마테라치에게서 나왔다.

전반 26분 이탈리아가 두번째 얻은 코너킥 기회에서 프란체스코 토티가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공을 띄우자 마테라치가 수비수를 제치고 힘차게 솟구쳐 헤딩슛으로 골문 속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기세가 오른 이탈리아는 후반 42분 인차기가 중원에서 체코의 볼을 가로챈 뒤 상대 왼쪽 진영으로 단독 드리블해 골키퍼 페트르 체흐를 가볍게 제치고 승부에 쐬기를 박는 추가골을 터뜨렸다.

체코는 수적 열세로 경기의 주도권을 빼앗긴 채 후반 8분 네드베트가 상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맞은 일대일 찬스에서 골키퍼 페르난도 코코를 차는 등 수차례 얻은 찬스에서 만회골을 뽑지 못하고 부루를 삼켰다.

### 가나, 아프리카의 희망

#### ▲가나-미국

월드컵 본선에 처음 오른 아프리카의 북명 가나가 조별리그 2차전에서 체코를 2-0으로 완파한 기세를 몰아 미국의 16강행을 좌절시켰다.



### 축구황제의 화려한 부활

23일 독일 도르트문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조 일본과의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브라질 호나우두가 골을 성공시킨 후 골 세러머니를 펼치고 있다.

초반부터 거친 몸싸움을 주고 받으며 미국과 맞선 가나는 볼을 잡고 있는 시간은 미국에 뒤졌지만 예리함에서 앞섰다.

가나는 전반 22분 미드필더 하미누 드라마니가 미국 진영에서 클라우디오 레이나의 백패스를 가로채 만든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놓치지 않고 선제골을 뽑았다.

미국은 전반 43분 클린트 덴퍼스가 다마커스 비즐리가 오른쪽에서 건넨준 팡볼 크로스를 차넣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

렸지만 전반 인저리 타임 때 오구치 오니우가 페널티지역으로 침투하던 라자크 림퐁을 밀어 넘어뜨리는 반칙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심이 지체없이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키커로 나선 가나 주장 스티븐 아피아는 가볍게 골을 성공시켜 다시 리드를 잡았고, 미국은 속절없이 16강 탈락의 아픔을 고풍해야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 월드컵 소식

### 돌아온 킬러 호나우두

### 뮐러와 최다득점 타이

과제중 논란으로 마음고생을 했던 '삼바군단' 브라질의 스트라이커 호나우두(30·레알 마드리드)가 '킬러 본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실추된 명예를 회복했다.

2006 독일 월드컵 F조 브라질-일본 간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 23일(한국시간) 도르트문트 월드컵 경기장.

비겨도 탈락하는 일본은 배수의 진을 치고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여 전반 34분 다마다 게이지의 선제골로 1-0 리드를 잡았다.

볼의 일격을 당한 우승 후보 브라질의 자존심을 살린 건 앞선 두 경기에서 무거운 몸놀림으로 '비판'의 의혹을 사며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았던 호나우두였다.

호나우두는 0-1로 끌려가던 전반 인저리타임 때 호나우두가 오른쪽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시시뉴가 배달하자 헤딩슛으로 정확하게 일본의 골문을 흔들었다.

'98 프랑스 월드컵 4골과 득점왕을 차지했던 2002 한·일 월드컵 8골에 이어 1골을 보태 통산 13번째 골을 기록, 자신의 우상이었던 '축구 황제' 펠레를 넘어서는 순간이었다.

호나우두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브라질은 후반 두 골을 몰아치며 3-1로 확실한 승기를 잡았고 호나우두는 후반 36분 주앙과 삼카패스를 주고 받은 끝에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오른쪽으로 강하게 차 4-1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통산 14호골로 월드컵 통산 최다득점 보유자인 게르트 뮐러(독일)와 부문 공동 1위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다.

### 日 지쿠 감독 쓸쓸한 퇴장

독일월드컵축구 조별리그 F조 최종전에서 브라질에 1-4로 져 16강 행이 좌절된 지쿠 일본대표팀 감독이 4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고 교도통신이 23일 전했다.

일본축구협회는 2002년 7월 필립 트루시에 전 대표팀 감독 후임으로 당시 일본프로리그(J-리그) 1부 가시마 엔셀러스 총감독으로 활약한 지쿠를 임명했다.

지쿠 감독은 이후 일본을 2004년 아시안컵 우승으로 이끌었고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서도 2위에 올려 놓아 본선에 진출했으나 결국 1부2패로 조 4위에 그쳐 탈락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